

아이디어창출

발명의 발상기법

보일러가 되어버린 다구마

발명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의 전유물일까? 그렇지 않다.

일본의 깊은 산 속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던 다구마는 아무것도 배운것이 없는 무식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결점을 극복하고 성능 좋은 보일러를 발명하였다.

그가 발명에 성공한 비결은 간단하다. 그는 스스로 보일러가 되어 보았다.

“제발 그만 뒤요. 되지도 않을 일에 매달리면 뭐해요!”

다구마의 친구들과 친지들은 그의 연구를 극구 반대했다. 사실 그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었다. 때문에 보일러 연구같은 거창한 일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엄청난 연구비로 인해, 그가 경영하던 제재소는 문을 닫아야 했다. 거기다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어 모든 상황이 다구마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럴때 내가 보일러라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는 뭔가 일이 안 풀릴때면 스스로 온갖 사물이 된듯 가정하고 생각해 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보일러가 되어서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모든 문제점이 눈앞에 보이듯 확연히 드러났다.

‘가열된 김은 올라가려 하는군. 이들이 서로 부딪혀서 문제가 되는구나!’

일단 문제점이 드러나자 해결방법은 쉽게 찾아졌다.

‘맞아! 교통 순경이 교통정리를 하듯, 내 보

일러도 길을 나누어서 정리 하는거야. 차가운 물끼리 다니는길, 뜨거운 김끼리 다니는 길을 정하는 거지’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새 보일러를 만들었다. 바로 이중파이프를 이용한 보일러 였다.

이렇게 탄생된 보일러는 종전의 것보다 수배나 효율이 높은 것이었다. 이것은 날개가 돌힌듯 잘 팔려 나갔고, 그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다.

다구마의 성공은 많은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가정용 파마로 2천만 달러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명가들의 공통적 특성은 바로 끈기와 인내인것 같다.

그들은 연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코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달게 받고, 성공의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가정용 파마용구의 발명자로 유명한 미국의 발명가 하리스도 바로 이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40세가 넘도록 변변한 사업도 못하고 미용품점을 꾸려가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속에서도 결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아직은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에게도 성공의 기회가 꼭 찾아올 거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화장품에 대한 연구를 착실히 쌓아나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하리스는 거래를 위해 미용원에 들렀다가 드디어 자신이 고대하던 성공의 기회를 잡게

“

‘이럴때 내가 보일러라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는 뭔가 안 풀릴때면 스스로
온갖 사물이 되어보는 버릇이 있었다.

”

되었다.

‘저런... 저렇게 파마를 힘들게 하네.’

하리스는 파마를 하는 광경을 보며 몹시 놀라워했다. 당시의 파마기술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그 과정도 복잡해서 요즘이 몹시 비쌌다. 하리스는 이점에 착안하여 가정용 파마용구를 만들기로 했다.

‘아무리 예뻐지는 것을 바라는게 여자라지만, 저런 어려움을 모두 참기는 힘들거야. 싼 값으로 편하게 집에서 파마를 할 수 있다면 좋아 할거야.’

그는 우선 많은 책을 통해 사전지식을 습득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을 찾아 다니며 의견을 물어 웨이브액과 중화제, 권모기와 고무띠 등을 완성했다. 이렇게 탄생된 파마용구는 토니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판매되었다.

하리스는 이 상품을 선전하는데 있어서도 기막힌 아이디어를 사용했다. 그는 아름다운 일관성 쌍둥이 몇 쌍을 선발하여 한편은 미용실에서 제대로 파마를 하게하고 다른 한편은 토니를 사용해 집에서 스스로 파마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서 파마를 한 쪽을 가려내도록 한 것이다. 이 광고로 토니는 대대적인 선품을 일으키며 전 세계로 팔려나가게 되었다.

애인 얻은 안전핀 발명

우리는 발명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불멸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발명의 성공이 가져다 주는 행운이 이뿐만은 아닌가 보다. 때때로 발명은 사랑을 이어주는 큐핏의 역할도 하는것 같다.

‘아 어떻게 열흘안에 천달러를 벌 수 있담.’

한트는 깊은 한숨을 몰아 쉬었다. 그는 헤스타라는 아가씨를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사랑은 곧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헤스타의 아버지가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한트는 가진것이 너무 없어. 헤스타를 고생시킬 것이 뻔해. 하지만 기회는 한번 쥐보겠다. 열흘안에 천달러를 벌어와라. 그러면 너희의 결혼을 승낙하겠다.”

헤스터 아버지의 이 말은 사실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이나 다름 없었다.

‘걱정만 하고 있어선 아무것도 안되지... 무엇이든지간에 해보아야겠다.’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부활절에 리본을 달때 쓰이는 핀이 언뜻 띄었다.

“맞아! 지금 쓰이는 바늘핀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리본이 자꾸 떨어지거든... 저것을 고쳐보아야겠다.”

그는 한 옹크의 철사와 공구를 가지고 다락방에 틀어박혔다. 그렇게 몇시간이 지난후 그는 그럴듯한 모양의 핀을 완성해 내었다. 바로 안전핀의 탄생이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온 시내의 리본점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이었을까, 한트는 보무도 당당하게 헤스타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장인어른, 헤스타를 제게 주십시오. 약속대로 천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